

초심자 좌파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개념의 매우 간략한 정리

치킨란트

역시나 다들 아는 얘기겠지만, 다 쳐내고 엄청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독재라는건 고대 로마에서 비상대권 행사시기를 뜻하는 말이야.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아니라 정상상황의 반의어라는 말이지.

마르크스가 평생 극복하려한 헤겔은 근대사회의 문제를 공사분리 즉 정치생활과 경제생활의 분리라고 보고 극복하려 했어. 루소에서 시작한 문제의식이고 아렌트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헤겔이 <법철학>에서 내놓은 해법이 뭐냐, 입헌군주제야. 사회에서 올라오는 공론과 국왕이라는 위에서 아래로의 공론이 만나 사회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는것.

그런데 헤겔보다 후대의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이렇게 근대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간다는건 가능하지 않은 구조야. 왜냐, 이미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사회라는것 자체가 특정 계급 즉 부르주아의 이해관계라는 망을 통해 한번 필터링을 거치고 의견을 올려보내기 때문. 즉 프롤레타리아라는 존재들은 대표되지 않는 존재인거지. 체제논리 밖 존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체제가 안정적일 수 있나.

생략하고 바로 <공산당선언>으로 가면 마르크스는 이 프롤레타리아(이하 피티)들이 근대적 교통수단이 만들어낸 단결의 조건을 가지고 지역적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조직해가며 당을 만들고 끊임없이 깨지면서도 단결을 확대해 나간다고 보지. 그리고 부르주아들은 국내의 비 산업적 부르주아들과 귀족, 지주들 그리고 국외의 부르주아들과 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피티에게 손을 내밀고 근대적 교양 교육을 시켜줘야해.

이렇게 피티가 부르주아를 상대로 자유시간, 여가시간을 얻어내고 수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본주의 대경영 즉 사회적 생산에 걸맞는 사회적 소유관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운영할 능력을 키우게 되지. 그렇게 집권하게 되면 이전에 부르주아들이 사회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가 아닌 욕구들을 쳐냈듯이 피티들이 부르주아들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면서 사회를 운영하게 되고, 이 시기의 국가의 형태는 '사멸해 가는 국가'로서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야.

마르크스에게 부르주아지가 만든 근대세계는 민족적 특수성을 제거해나가고 세계를 통합해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르주아 계급은 여전히 지배계급으로서 민족적 성격을 가지고 근대민족국가에게 외국의 부르주아지와 피티들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는 이들이야. 그런 부르주아들의 최후 보루인 근대민족국가이니 당연히 피티가 집권하자마자 그 성격을 바꾸어 나가면서 사멸시켜 나가는거지.

나도 공부가 깊지 않지만 대충 지금까지 공부한걸 팟캐스트 <안알남>의 큰 도움을 받아서 정리해봤어. 물론 쟁점은 어마어마하게 많지. 그럼 피티독재는 언제 끝나나? 사회주의/공산주의는 피티독재 자체냐 아니면 피티독재는 이행기일 뿐인가. 피티독재 기간의 권력행사는 어떻게 견제되는가. 물론 현실에서 스스로를 피티독재라고 부른 과정은 결국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독재로 전환되면서 아름답게 끝나지 못했다는건 다들 알지.

어쨌든 후기 마르크스가 파리코뮌을 보고 피티독재 개념을 다듬고 정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건 뭐 역시 다들 아는 내용일거라 시간나면 나중에 쓰기로 하고. 사실 현실에서 피티독재라걸 둘러싼 논쟁을 보려면 10월 혁명 직후부터의 문헌들을 봐야해. 카우츠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하여> 레닌의 <국가와 혁명>, <배신자 카우츠키>, 그 외에 NEP시기 이행기 논쟁들도. 발리바르의 <민주주의와 독재>(원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하여, 곧 세번역이 나온다는 소문)도 좋고, 서사과연에서 91년도인가 나왔던 <사회주의의 역사 이론 현실>에도 레닌의 이행기론을 통해 그의 사회주의관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했고. 책들이 죄다 본가에 있어서 참고를 못하네. 디시에 글 쓰는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냐만.

오늘도 읽고 또 공부하는 좌파들 되자구!